

DU-도전학기 결과보고서

과제명	다큐멘터리 제작 및 공모전 출품			
참여자	성명	소속		학번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지도교수 의견	0 학생은 이번 도전학기 동안 '문래동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기획했다. 주제를 변경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공모전 출품에 더 적절하고 시의성있는 주제로 변경하고 빠르게 진행해 차질 없이 마무리된 것 같다. '핫 플레이스'가 된 문래동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현상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그것을 철공소 사람들의 관점으로 풀어내 시청자들에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고 또 피드백을 반영해 기승전결의 흐름을 따라 몰입할 수 있도록 제작한 단편 다큐멘터리라고 판단된다.			
	(소속)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1. 도전 과제 내용

- 우리 팀의 도전과제 내용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사라지는 문래동 철공소'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라져가는 문래동 철공소와 철공소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를 통해 현재 문래동 철공소의 실태를 보여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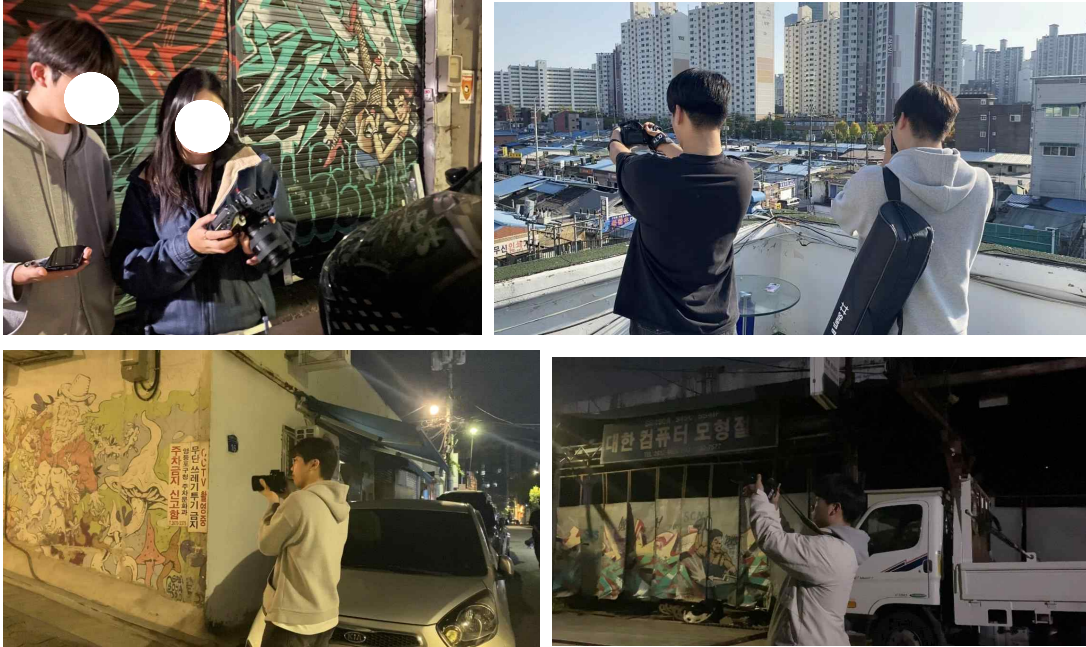
문래동과 철공소에 대한 사전작업을 통해 기획안과 촬영구성안을 작성해 촬영 준비를 마쳤다. 촬영 구성안에 맞게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현장 탐방 및 촬영을 진행했다. 인터뷰지를 통해 현장에서 문래동에서 철공소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문래동 상인들을 섭외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촬영된 인터뷰지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프리뷰 노트(인터뷰 정리)를 작성하고 이야기의 흐름을 정리하기 위해 편집구성안을 작성하고, 편집구성안에 맞게 편집을 진행했다. 교수님과의 면담 이후 피드백에 맞게 재구성 및 재편집을 진행하고 사회과학대학 복합 문화공간 '와글'에 4일간 상영하고, 학우 및 교수, 교직원의 감상평을 받을 수 있었다. 다큐멘터리 관련 공모전이 현재 모두 마감된 관계로 2025년에 출품할 계획이다.

2. 도전 과제 수행 결과 및 성과

• 팀 공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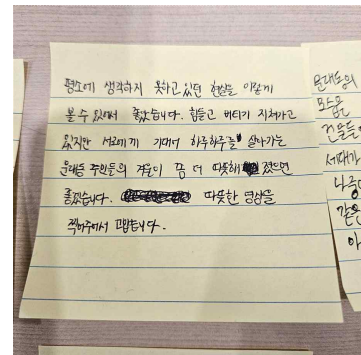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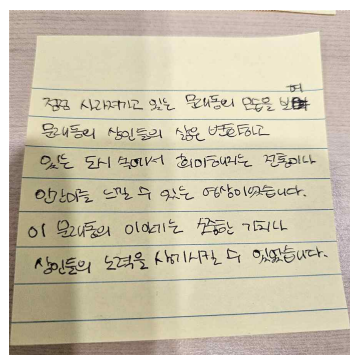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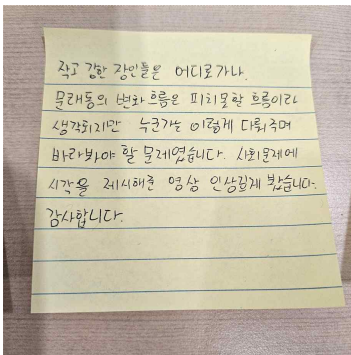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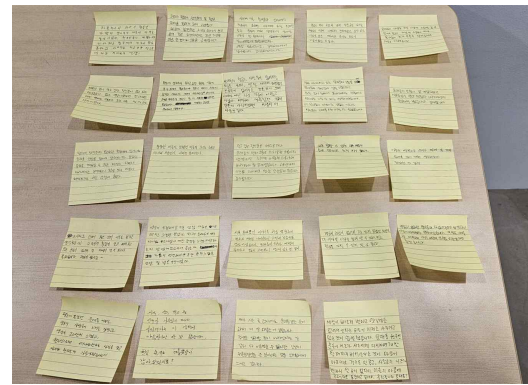
1) 10.31-11.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 현장 촬영



2) 복합문화공간 '와글' 상영

사회과학대학 복합문화공간 '와글' 상영 포스터 제작 후 사회과학대학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12.10-12.13까지 약 4일간 상영하였으며, 24개의 감상평을 받았다.





• 팀원 개별

인터뷰 섭외 계획	현장 탐방에 앞서, 인터뷰 계획서를 작성했다. 인터뷰 계획서에는 인터뷰 섭외 계획, 인터뷰 장소 계획, 인터뷰 예상 질문으로 구성 되어있다. 촬영 탐방 전, 촬영 구상안을 통해 필요한 컷과 인터뷰를 담기 위해 필요 질문들을 계획하고 탐방에 임했다.
--------------	--

	〈다큐멘터리 '작고 강한 장인들은 어디로 가는가'〉 -인터뷰 계획- -인터뷰 참여 계획 1. 인터뷰 대상 선정 2. 인터뷰 대상 선정 기준 3. 인터뷰 대상 선정 방법 4. 인터뷰 대상 선정 5. 인터뷰 대상 선정 -인터뷰 장소 계획 ▶ 인터뷰 대상과 장소 후 진행 -인터뷰 예상 질문 <table border="1"> <tr> <td> 1. 인터뷰 대상 선정 1. 인터뷰 대상 선정 2. 인터뷰 대상 선정 3. 인터뷰 대상 선정 4. 인터뷰 대상 선정 5. 인터뷰 대상 선정 6. 인터뷰 대상 선정 7. 인터뷰 대상 선정 8. 인터뷰 대상 선정 9. 인터뷰 대상 선정 10. 인터뷰 대상 선정 </td><td> 1. 인터뷰 대상 선정 2. 인터뷰 대상 선정 3. 인터뷰 대상 선정 4. 인터뷰 대상 선정 5. 인터뷰 대상 선정 6. 인터뷰 대상 선정 7. 인터뷰 대상 선정 8. 인터뷰 대상 선정 9. 인터뷰 대상 선정 10. 인터뷰 대상 선정 </td></tr> </table>	1. 인터뷰 대상 선정 1. 인터뷰 대상 선정 2. 인터뷰 대상 선정 3. 인터뷰 대상 선정 4. 인터뷰 대상 선정 5. 인터뷰 대상 선정 6. 인터뷰 대상 선정 7. 인터뷰 대상 선정 8. 인터뷰 대상 선정 9. 인터뷰 대상 선정 10. 인터뷰 대상 선정	1. 인터뷰 대상 선정 2. 인터뷰 대상 선정 3. 인터뷰 대상 선정 4. 인터뷰 대상 선정 5. 인터뷰 대상 선정 6. 인터뷰 대상 선정 7. 인터뷰 대상 선정 8. 인터뷰 대상 선정 9. 인터뷰 대상 선정 10. 인터뷰 대상 선정
1. 인터뷰 대상 선정 1. 인터뷰 대상 선정 2. 인터뷰 대상 선정 3. 인터뷰 대상 선정 4. 인터뷰 대상 선정 5. 인터뷰 대상 선정 6. 인터뷰 대상 선정 7. 인터뷰 대상 선정 8. 인터뷰 대상 선정 9. 인터뷰 대상 선정 10. 인터뷰 대상 선정	1. 인터뷰 대상 선정 2. 인터뷰 대상 선정 3. 인터뷰 대상 선정 4. 인터뷰 대상 선정 5. 인터뷰 대상 선정 6. 인터뷰 대상 선정 7. 인터뷰 대상 선정 8. 인터뷰 대상 선정 9. 인터뷰 대상 선정 10. 인터뷰 대상 선정		
현장 탐방	현장 탐방에서 인터뷰 대상 섭외 및 인터뷰, 촬영을 담당했다. 먼저, 문래동 사전조사를 통해, 문래동에 유일하게 남은 '별 다방'을 먼저 찾았다.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 주셨기에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다방 사장님께서 아시는 철공소 사장님을 통해 다른 철공소 인터뷰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일부 계획했던 인터뷰와 조금 달라진 부분과 추가된 인터뷰도 있다.   현장 탐방 중, 영상의 브릿지 쇼트들을 위해, 문래동 곳곳의 다양한 쇼트들도 촬영하였다.		



이번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에서 프로듀서 역할을 맡은 만큼, 일정 계획서를 작성했다.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서를 통해 진행하였다.

〈다큐멘터리 '작고 강한 장인들은 어디로 가는가'〉
-일정 계획서(탐방 이후)-

일정 계획서

날짜	일정	비고
11.4~ 11.8	박원수: 이야기 열개 작성 김상진: 내레이션 구성	
11.11~ 11.15	박우석: 촬영본 정리 박원수: 이야기 열개 세부 사항 정리 김상진: 내레이션 구성 구체화 및 정리	
11.18~ 11.22	박우석: 가편집 박원수, 박우석: 편집	교수님 연달 진행 예정
11.25~ 11.29	김상진: 내레이션 녹음 박원수, 김상진, 박우석: 편집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편집실
12.2~ 12.6	박원수, 김상진, 박우석: 최종 편집	교수님 연달 진행 예정
12.9~ 12.13	최종 결과물 사회과학대학 '와글' 전시	사회과학대학 '와글'
12.16	2024-2 도전학기 결과보고회	생산물

탐방 이후, 전문가의 소견과 녹음, 촬영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0 교수님을 섭외하여, 추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영상을 제작하는 방향성에 대해 많은 도움을 얻었으나, 영상 구성에 있어 아쉽게도 담지 못했다.

추가 인터뷰

- 인턴: 교수님 인터뷰 (인터뷰어: 장진)
- 1)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 2)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3)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4)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5)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6) 지주 촬영본을 보면서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7)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8)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9)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10)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11)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12)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13)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14)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15)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16)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17)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18)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19)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20)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21)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22)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23)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24)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25)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26)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27)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28)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29)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30)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31)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32)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33)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34)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35)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36)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37)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38)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39)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40)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41)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42)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43)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44)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45)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46)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47)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48)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49)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50)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51)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52)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53)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54)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55)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56)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57)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58)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59)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60)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61)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62)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63)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64)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65)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66)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67)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68)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69)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70)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71)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72)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73)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74)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75)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76)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77)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78)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79)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80)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81)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82)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83)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84)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85)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86)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87)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88)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89)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90)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91)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92)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93)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94)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95)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96)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97)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98)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99)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 100) 평소 미디어가 궁금한가? (인터뷰어: 장진)

내레이션 구상	0학우가 정리해준 촬영본과 인터뷰 프리뷰, 0 학우가 정리한 이야기 열 개를 바탕으로 내레이션을 구상했다. 문래동 젠트리피케이션 내레이션 구상안 1. 달하있는 절공소: 절공소 사장님들이 일이 없어 있어 있는 모습. 2. 타이틀 3. 문래동에 대한 설명 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청계천에서 밀려난 많은 절공소들이 자리 잡아있으며, 60년 간 이어져오고 있다. 3. 문래동은 값싼 임대료에 예술인들이 하나 둘 자리를 잡으며, 문래동은 절공소와 예술의 만남이라는 독특한 조합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4. 달라진 문래동의 분위기 N: 항상 절공소의 열기와 인분들이 열정적으로 가득했던 문래동은 이제 낯보다 발레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5. 절공소 단지의 변화 N: 어느새 절공소들은 하나 둘, 음식점, 카페 등으로 바뀌었다. 6. 문래동 임대료 변화 N: 장금이 들어서서 높아지는 임대료에 절공소 사람들의 타격을 입었다. 7. 절공소의 일거리 부족 N: 임대료는 물론, 장기로 좋지 않아, 일거리도 사라져만 가고 있다. 8. 없어지는 절공소들 N: 그렇게 점점 문래동의 절공소는 비워져만 간다. 9. 절공소를 바라 한여겨하는 주변인 N: 떠나야 했던 건 절공소뿐만이 아니다. 함께 살아야만 가족과도 같았던 사람들을 떠나야만 했다. 10. 절공소의 미래 N: 절공소 장인들의 기술 또한 다음 잊혀지고 사라져만 간다. 11. 원주민들의 문래동 희망 N: 오랫동안 문래동을 지켜오신 사람들이 축복 또한 고스란히 남아있다. 12. 문래동을 떠나야만 하는 현실 N: 문래동을 사랑했던, 사랑하는 이들의 아픔들이 적어만 간다.
내레이션 수정	1차로 구성했던 내레이션을 통해, 영상의 흐름과 분위기에 맞지 않는 부분을 다시 수정했다. 수정은 2차 수정, 3차 수정으로 이루어진다. 문래동 젠트리피케이션 - 내레이션 구상안 / 작고 강한 장인은 어디로 가나 : 문래동 절공소 장님도 오랜 물세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⁰¹ 1. 달하있는 절공소: 절공소 사장님들이 일이 없어 있어 있는 모습.⁰² 2. 타이틀⁰³ 3.4. 문래동에 대한 설명⁰⁴ 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과거 청계천에서 밀려난 수많은 절공소들이 이곳을 새로운 터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60년, 문래동은 절공소의 마을로 자리를 지켜왔습니다."⁰⁵ N: " 값싼 임대료와 특유의 분위기에 매력을 느낀 예술가들이 이곳에 등지를 하기 시작하면서 문래동은 절공소와 예술이 만나는 독특한 동네로 알려졌습니다."⁰⁶ 5. 달라진 문래동의 분위기⁰⁷ N: 금속을 다루던 열기가 가득했던 문래동, 지금은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⁰⁸ 6. 절공소 단지의 변화⁰⁹ N: "저녁이 되자, <u>한나들책</u> 문을 닫는 절공소들과는 달리 골목마다 음악소리가 흐르고 거리와 가게에는 사람들이 북적입니다."¹⁰ "절공소가 나간 자리에 <u>한나들책</u>, 음식점과 술집들이 들어오면서 문래동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었습니다."¹¹ 7. 문래동 임대료 변화¹² N: "그런데 상권이 형성되면서 갑작스럽게 지수는 임대료에 절공소 사람들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¹³ → 신안가게 인터뷰 뒷부분에 타격을 입은 건 <u>절공소뿐만이</u> 아닙니다. 24년동안 절공소 골목에서 다방을 운영해온 사 8. 절공소의 일거리 부족¹⁴ N: "설상가상으로 일거리도 줄어들었습니다."¹⁵ → 신안가게 다음으로 <u>내려</u> 추가 한평생을 이 문래동에서 살아온 신흥상회의 사장님은 절공소 일을 경험한 시절을 떠올립니다.¹⁶ 한 때 월 세 없이 들어가던 가게들은 멈춰 서 있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¹⁷ (문래동 절공소의 불은 점점 꺼져갑니다.)¹⁸ 9. 없어지는 절공소들¹⁹ N: "잠깐 해 온 세월만 30년 이상, <u>한병록씨</u>는 아직도 <u>가죽갈던</u> 절공소 사람들을 <u>떠나보냈습니다</u>."²⁰ 10. 절공소를 따라 함께 없어져가는 오래된 주변 상점²¹ N: "<u>별다발</u> 사장님은" 11. 절공소의 미래²² N: 문래동 절공소는 사실상 서울에서 유일하게 남은 금속가공제작 집적지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장인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들의 손길이 닿으면 철로 만들 수 없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²³ → 정도 만들 수 있다²⁴ 하지만 그들의 맘과 열정을 이어받을 사람은 보이지 않는 듯 합니다.²⁵ → 11 대를 이어 사랑 받는 이야기²⁶

12. 원주민들의 문래동 회상회

N: "문래동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 그들에게 문래동은 그저 한 동네가 아닙니다. 삶의 터전이고, 함께한 추억 그 자체입니다."

13. 문래동을 떠나야만 하는 현실

N: 오랜시간 함께했던 동네를 떠나야한다는 현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세상이 변한다는건 어찌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작고도 강한 장인들에게 문래동은 평생을 일구는 기술이며 삶이고, 다음 잊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마지막까지 지키고싶은 곳입니다."

타이틀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는 문래동과 관련한 챗트리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한 지적이 계속 되자, 1200곳이 넘는 '문래동 철공소'를 통째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계현에서 밀려난 문래동의 철공소는 다음 잊기는 커녕 또다시 속수무색으로 밀려날 위기를 맞이했다.

각 구성했던 내레이션 녹음을 진행했다. 1차, 2차, 3차 녹음을 전부 진행했다. 마지막 3차 수정 내레이션 녹음을 최종적으로 영상에 사용했다.

< > 내레이션 1차				< > 내레이션 2차			
이름	수정일	크기	종류	이름	수정일	크기	종류
3.m4a	2024년 11월 29일 오후 7:37	153KB	Apple...-4 오디오	내레이션 3.2.m4a	2024년 12월 3일 오후 3:05	182KB	Apple...-4 오디오
4.m4a	2024년 11월 29일 오후 7:38	124KB	Apple...-4 오디오	내레이션 108.m4a	2024년 12월 3일 오후 3:06	166KB	Apple...-4 오디오
5.m4a	2024년 11월 29일 오후 7:38	80KB	Apple...-4 오디오	내레이션 109.m4a	2024년 12월 3일 오후 3:09	74KB	Apple...-4 오디오
6-2.m4a	2024년 11월 29일 오후 7:38	91KB	Apple...-4 오디오	내레이션 110.m4a	2024년 12월 3일 오후 3:10	80KB	Apple...-4 오디오
6.m4a	2024년 11월 29일 오후 7:38	103KB	Apple...-4 오디오	내레이션 111.m4a	2024년 12월 3일 오후 3:10	47KB	Apple...-4 오디오
7.m4a	2024년 11월 29일 오후 7:38	85KB	Apple...-4 오디오	내레이션 112.m4a	2024년 12월 3일 오후 3:10	196KB	Apple...-4 오디오
8.m4a	2024년 11월 29일 오후 7:38	97KB	Apple...-4 오디오	내레이션 113.m4a	2024년 12월 3일 오후 3:11	88KB	Apple...-4 오디오
9-2.m4a	2024년 11월 29일 오후 7:38	80KB	Apple...-4 오디오	내레이션 114.m4a	2024년 12월 3일 오후 3:11	105KB	Apple...-4 오디오
9.m4a	2024년 11월 29일 오후 7:38	83KB	Apple...-4 오디오	내레이션 115.m4a	2024년 12월 3일 오후 3:11	81KB	Apple...-4 오디오
11-2.m4a	2024년 11월 29일 오후 7:39	57KB	Apple...-4 오디오	내레이션 116.m4a	2024년 12월 3일 오후 3:11	139KB	Apple...-4 오디오
11.m4a	2024년 11월 29일 오후 7:39	141KB	Apple...-4 오디오	전광용 5.m4a	2024년 12월 3일 오후 3:05	119KB	Apple...-4 오디오
12.m4a	2024년 11월 29일 오후 7:39	104KB	Apple...-4 오디오	전광용 6.m4a	2024년 12월 3일 오후 3:06	72KB	Apple...-4 오디오
13.m4a	2024년 11월 29일 오후 7:39	97KB	Apple...-4 오디오	전광용 8.m4a	2024년 12월 3일 오후 3:06	92KB	Apple...-4 오디오
여지민.m4a	2024년 11월 29일 오후 7:39	144KB	Apple...-4 오디오	전광용 9.m4a	2024년 12월 3일 오후 3:07	86KB	Apple...-4 오디오
전광용 2.m4a	2024년 11월 29일 오후 7:45	176KB	Apple...-4 오디오	전광용 10.m4a	2024년 12월 3일 오후 3:07	77KB	Apple...-4 오디오
				전광용 11.m4a	2024년 12월 3일 오후 3:09	44KB	Apple...-4 오디오
				전광용 37.m4a	2024년 12월 3일 오후 3:10	62KB	Apple...-4 오디오

< > 내레이션 3차			
이름	수정일	크기	종류
1.m4a	그저께 오후 10:53	80KB	Apple...-4 오디오
2.m4a	그저께 오후 10:52	73KB	Apple...-4 오디오
3 3.m4a	그저께 오후 10:52	102KB	Apple...-4 오디오
4 2.m4a	그저께 오후 10:52	67KB	Apple...-4 오디오
5 2.m4a	그저께 오후 10:52	92KB	Apple...-4 오디오
6 2.m4a	그저께 오후 10:52	84KB	Apple...-4 오디오
7 2.m4a	그저께 오후 10:52	61KB	Apple...-4 오디오
8 2.m4a	그저께 오후 10:52	66KB	Apple...-4 오디오
9 2.m4a	그저께 오후 10:52	69KB	Apple...-4 오디오
11 2.m4a	그저께 오후 10:51	112KB	Apple...-4 오디오
12 2.m4a	그저께 오후 10:51	85KB	Apple...-4 오디오
13 2.m4a	그저께 오후 10:51	85KB	Apple...-4 오디오
그레도 한메.m4a	그저께 오후 10:52	87KB	Apple...-4 오디오
최를 녹이고.m4a	그저께 오후 10:52	94KB	Apple...-4 오디오
지금은 명혜버린.m4a	그저께 오후 10:52	75KB	Apple...-4 오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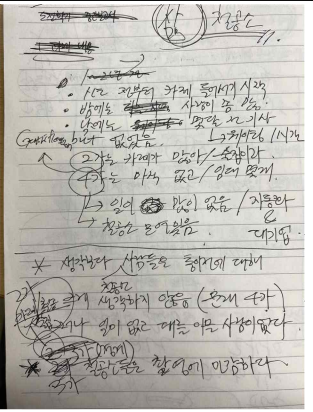
내레이션 녹음

현장 촬영 진행	- 확과 기자재실에서 촬영에 필요한 기자재(카메라, 리그, 마이크, 트라이포드 등)를 챙겨서 서울 촬영을 진행하였다. 촬영구성안을 작성을 하였지만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에 주제와 맞다고 판단되는 건물이나 길목 등을 최대한 촬영하여 남겼다. 문래동 2가는 철공소들과 카페, 가게들이 다같이 있었고 문래동 4가에는 철공소들만 철공소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최종적으로 철공소 위주로 촬영을 많이 진행하였다.
----------	---

	15. 앞서 봤던 4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이다. 16. 이미 2가 쪽으로는 잠식되고 있고...라고 하시는 사장님 17. 우리가 여기서 30년을 있었는데 안 떠나고 싶지. 여기 철공소도 60년 넘게 있던 것들이기도 하고... 라고 말하는 사장님 18. 이 작업이 지저분하고 더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반 보존의 가치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하는 사장님 19. 철공소가 형성된지도 60년이 넘었다. 또한 이들은 30년 넘게 이곳에서 작업하며 철재를 만들어 냈다. 20. 재개발을 통해 새롭게 현대화 하는 것도 좋으나 이러한 살아있는 역사가 있는 곳을 모조리 없앨 필요는 없다.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1. 문래동이라는 공간에서 이곳을 지켜낸 그들의 있었기에 지금까지도 철공소들이 운영이 되는 것이다. 22. 이들 한명 한명이 다 장인들이다. 23. 과거와 현재를 잇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역사가 담긴 장소를 보존하는 것에 있는 것이다. (일부 수정) 이야기 열개 (최종) 1. 단혀있는 철공소, 철공소 사장님들이 일이 없어 앉아 있다. 2. 문래동에 대한 설명 3. 값싼 임대료에 예술인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으며 문래동은 철공소와 예술의 만남이라는 독특한 조합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4. 과거의 문래동은 철공소로서 활발했었다. 지금은 낮보다 밤에 사람들로 붐빈다. 5. 어느새 철공소들은 하나둘씩 음식점이나 술지붕로 바뀌었다. 6. 상권이 들어서며 높아지는 임대료에 철공소 사람들은 타격을 입기도 했다 7. 설상가상으로 경기도 안좋아져 일거리로 없어지고 있다. 8. 결국 떠나기 시작하는 철공소들 9. 떠나야하는 건 철공소뿐인 것이 아니다. 10. 오랜시간 문래동에 있던 사람들은 문래동을 회상한다. 11. 문래동을 떠나기 아쉬워하는 사람들 12. 문래동은 그저 한 동네가 아닌 삶의 터전이다 13. 이러한 문래동을 사람들은 더욱 지키고 싶어 한다.
편집 구성안	작고 강한 장인들은 어디로 가나 편집구성안 1. 인트로 # 단혀있는 철공소들 # 멈춰있는 기계 # 일하시고 개신 철공소 사장님 웃모습 # 단혀있는 철공소들이 있는 거리 -될 두드리는 소리 2. 타이틀 - 작고 강한 장인들은 어디로 가나 : 문래동 철공소 이야기 3. 문래동에 대한 설명 # 문래동 철공소 전체 모습 N.서쪽쪽에서 영도포구 문래동 # 멀리있는 철공소들이 있는 거리 -오도바이 소리 N.과거 청계천에서 밀려난 철공소들이 # 철공소들과 현대적 인테리어 건물에 있는 모습 N.여곳을 새로운 터전으로 삼았습니다 # 사장님의 일하시는 모습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N.그렇게 60년 문래동은 # 기계를 다루시는 사장님의 모습 -기계가 작동하는 소리 N.철공소의 마음으로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 잘 자재들이 쌓여있는 모습 # 자재하면-사람들이 밀린 과거 문래동 N.트윅던 열기와 부서진 손길속에서 문래동은 살아 움직이는 작은 공방이었습니다 4. 문래동의 과거와 현재 # 문이 닫힌 철공소들의 모습 N.하지만 지금 그 뜨거웠던 열기는 사라지고 # 문이 닫힌 철공소에 그레타다가 있는 모습(밤) N.편해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 철공소 간판 (인서트(밤)) N.저녁이 되자 # 공작질에 사람들이 있는 모습(밤) -사람들의 말소리(한정소리) N.거리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 가게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밤) -사람들의 말소리(한정소리) N.음역소리가 공작마다 흐르듯 울리는 웃음소리가 기계를 가득 채웁니다 # 사람들이 많은 가게(밤) -사람들의 말소리(한정소리) -노래소리(한정소리) 5.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 # 담요리 가게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모습(밤) -사람들의 말소리(한정소리) N.하지만 이러한 밤 뒤엔 낯선 변화에 이별 줄 # 교차 가게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모습(밤) -사람들의 말소리(한정소리) N.울려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 철공소 사장님 일하시는 모습 -사람들 인터뷰 소리 N.젊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되던 옛날 문래동이 아니라 열성나게 울려와 밀도 못해

	# 일대가 직원 단원 청공소 모습 -사망님 인터뷰 소리 # 별 다말 인물 모습 # 사망님 일하는 모습 # 사망님 인터뷰 -사망님 인터뷰 소리 -죽던데 부동산 문 장면 촬영 # 청공소와 그레타리가 같이있는 모습 # 별로 만든 오봇의 모습 6. 일의 양 감소 # 청공소 가려의 모습 # 청공소 내부에 행인 청제들의 모습 # 청공소 사망님 인터뷰	-청공소 사망님 인터뷰 소리 # 신용상의 일드라운 장면 # 신용상의 '오래가게' 천원 장판 # 신용상의 사망님 인터뷰 -신용상의 사망님 인터뷰 소리 -인터뷰에 몇개 중간에 청공소 모습과 청제들의 모습 삽입 # 가래된 기계가 있는 청공소 내부 모습 # 청공소 사망님이 문 밖으로 나가시는 모습 -열 소리 7. 일이 많았던 운영동의 과거
	# 작업 도구를 만지시는 사망님 모습 # 기계를 작동하시는 사망님 모습 # 될 자재를 들고가시는 사망님 모습 # 청제를 다듬으시는 사망님 모습 # 기계를 작동하시는 사망님 모습 8. 고만이 많으신 사망님들 # 발표대가 있는 모습 # 수건과 가늘, 카이타가 있는 모습 # 운동화가 열여있는 모습 # 청공소 안의 강제지 모습 # 한병록 사망님 인터뷰	-한병록 사망님 인터뷰 소리 -인터뷰 내용에 몇개 장면 삽입 # 별 다말 사망님 인터뷰 -다말 사망님 인터뷰 소리 -인터뷰 내용에 몇개 장면 삽입 9. 박되어 가는 운영동에 아취음이 많으신 사망님들 # 한병록 사망님이 작전거를 끌고 가는 모습 # 청공소 앞에 작전거가 세워져 있는 모습 # 한병록 사망님 인터뷰 -한병록 사망님 인터뷰 소리
	박상 이말게 가려니가 서운하고 살, 굵이, 적막하고 # 신용상의 사망님 인터뷰 -신용상의 사망님 인터뷰 소리 # 다말 사망님 인터뷰 -다말 사망님 인터뷰 소리 -다말 사망님이 일하시는 원모습 삽입 # 청공소 사망님들이 기계를 돌리시는 모습들 # 청공소 사망님들이 대화하시는 모습	박이제도 한 세 집인가 운을 달라고 후배가 기계공회를 하는데 만날 할터였다는 것, 박에 대해 원하는 사람은 없고 # 박이 지금 나가려고 고민하는 분을보다 지금 당장 나갈 사람들이 여기 있어 일을 해 많이 했던 분인데 일이 해 끝났더라 몇 개월 동안 그냥 공회해서 나가고 (원래) 꺼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작기도 공장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이 다 공장 지고 들어오니까 공장이 지루 들어있잖아 그 공장 하나가 내 거였다고 내 공회인데 그 공회이 다 나가는게잖아 그러니까 장사가 안되는 거지 장사가 안되니까 지금 나도 고민이 많은 상황이지 박이제도 두리가 얘기를 몇 년을 일해서 기름받이라도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박이제까지 지지고 싶은 곳입니다 # 한병록 사망님이 작전거를 끌고 들어지시는 모습 10. 타어들 타어들 -원드러가어선으로 인한 정동고구리 운영동 청공소 이전 계획 청제현에서 일어난 운영동의 청공소는 또 일러나고 사라질 위기를 맞이했다. 11. 연딩 크레딧 -작고 강한 장인들은 어디로 가나 : 운영동 이야기

- 박현수

현장 탐방	- 사전답사를 다녀오지 못했기 때문에 사전 조사에서 자료 조사로 알아낸 문래동의 정보와 현장의 상황이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했다. 문래동 철공소들이 모여있는 2,3,4가를 중심으로 현장을 탐방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으며 인터뷰를 통해 철공소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사실확인 과정을 거쳤다. 
현장 촬영, 구도 연출 및 인터뷰 보조	- 2대의 DSLR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진행했다. 돌아가면서 다큐멘터리에 배치될 소스와 메이킹 필름에 들어갈 소스를 촬영했다. - 촬영 허가된 인터뷰 대상자와 어울리는 공간으로 인터뷰이를 배치하고 촬영 구도를 연출했다. 'Ode to Lesvos' 다큐멘터리를 참고했다.  - 인터뷰 담당(000) 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답변에 대한 2차 질문이 부족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진행했다. 
편집 구성안 함께 작성(이야기 구조)	- 편집 담당(000)이 작성한 프리뷰 노트를 바탕으로 편집 구성안을 작성하기 위한 이야기의 열개를 구성했다. - '다큐의 기술(김옥영)'의 8부 2장 편집 구성 부분을 참고했다. 1) 프리뷰 노트에서 유효한 부분 표시하기 2) 이야기 열개 짜기 3) 구조도 응용하기 (하나의 트랙으로 진행된 진행형 구조도 적용) 4) 장면과 인터뷰 구성하기

- 먼저 인터뷰 내용과 현장 탐방을 통해 얻은 정보를 가지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뿐만 아니라 사라지는 공간과 개발의 이면이라는 여러가지 관점을 열어두고 다양한 전개방식의 아이디어를 구상했다.
- 앞서 다큐멘터리의 기본 개념과 구조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할 때 레퍼런스로 분석했던 'Ode to Lesbos' 와 '나의 집은 어디인가' 다큐멘터리의 이야기 구조와 편집 구성을 분석해서 참고했다.

- 프라그마트 (쓰)

- **평형구심** **생물** 신은 완비. 가중?
- 1) 이 작용을 구해내야하는 무모와 무정함!
- 2) 미칠드, 장면 인문학 보람
- 3) 살아남은 요소를 버림과 한 예 성경을 용이하게 해줌

프로그/의류, 사들 ←

· 평판 (가장합 & 하등평판) **가능 but 이치는 안되는 합종연횡**

이야기 열개 개리

* 이전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하느님 학살하게 정한것

문태로 Gemification / 사이지는 중화 / 역사만 하는 존재

개별의 이론 /

사건 발생후론 평판적합

① 매는 어미는 사람 X **인간성의**

② 부자지 필적 ↓ **문제는 아니다**

③ 양친요 ↑ **수치증대제** **중년**

· 수의 항상 인본!

결국 문태를 창시하는 많은 철학자들 (보리매 운동의)

추진한다. / **(앞으로 매는 여신 쓰는 사람은)**

차이한 있다 / **어떤사람들은 문태를 활용하고 자기는 문태**

사람들, **→ 인간은 여신 쓰는**

≦ 2가 → 9가

철학자

다큐본식 '나의 강은 어디인가?' (아즈 사카)

- 1) 현재 상황 지막 (목명)
- 2) 사자 안의 큰곰 / 가리둥실 빛 비쳐
main 직
- 3) 생애는 사자 여주에서 / 시에서 잡에서
생각하나 방한을 만 생들 (한강)
- 4) 광장들 city view
- 5) 사자 선택을 들
- 6) 각 색 배가 상황
- 7) 광명 (한강 & 사자)
- 8) 아무나

'Ode To Lesvos' (22년 제1회 신인 문학상 수상작 - 최지나)

- 1) 큰곰 2) 광
- 주제를 나타내는 첫 장면 (생애)
- 3) Telle
- 4) 모든 장면 (생애) + 인류사에서
- 5) 선택 장면 / 사자의 광 상냥 — 광
- * 인류사 생애에 빛을 던져주는 장면도 있음
- * 인류사에 대해 고아
- * 고아는 생애에서 광하는 장면
- * 선택된 광 인류사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장면

회계년도 (인원제)

조금 / 너무 많지 (반대세)

→ 페널티 주는 것 이야기 안해 자기.

• 이야기 안해 자기.

① 회계년과 법령을 지어내는 장원을 꼭 숙할 거. 사람들 많이

② + 세 배나 산출액 Na.
우리는 떠날 수 밖에 없지.

이 사람이 다 나하면 나 차는 양제, 병행수책

7/1/e

③ 문제의 항목에 원 버전 (참고 + 여운진 건하)
기초부터 내용 주인 / 문제점 생략

④ 원문제 대해 설명하는 참고 & 생략.
주어진 2-4가 / 참고 & 생략 ...
일하는 모습.

⑤ ③ + 상대적 이야기
그 뿐만 아니라 ... ⑥ 개인이 지출한.
계정도 사라졌지

⑦ 참조 운영이라 제반 사항 / 기계 값,
Na 나도 많았는지 / 해 관해서 /
평상 사용된 기록을 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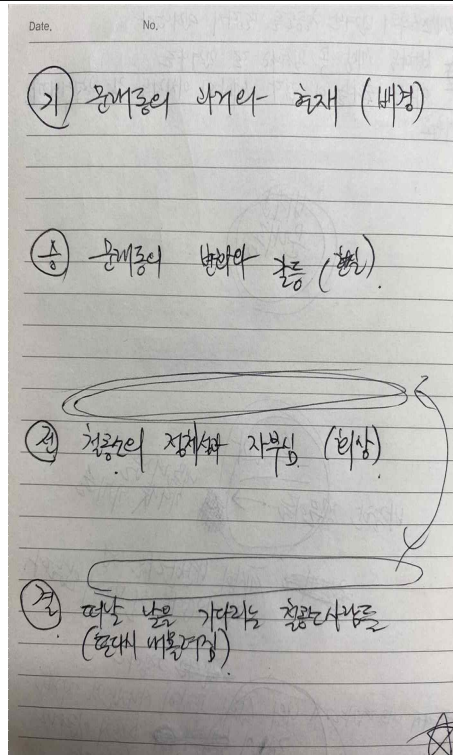
+

[illegible]

	<u>! 수화 메모</u> Date, No. 남 애반을 사랑은 99%는 있었지만 나를 두-6인지는 두가지 남 자신의 정면 대상 안하더라 것이다 남 이런 말을 배운 사람은 없고 배려하기 위한 마음 1) 많이 많이 안하더라 사랑님, 남은 두-6인지는 두가지 남 자신의 정면 대상 안하더라 것이다 남 이런 말을 배운 사람은 없고 2) 청공소 리브, 청공의 기가상, 청공의 유사상계를, 상대 가려들이 보이라 남은 두-6인지는 두가지 남 자신의 정면 대상 안하더라 것이다 남 이런 말을 배운 사람은 없고 3) 이니서 남은 두-6인지는 두가지 2개의 말을 청공소가 기게는 남은 두-6인지는 두가지 바뀌었다. 4) 남은 두-6인지는 두가지 남 자신의 정면 대상 안하더라 것이다 남 이런 말을 배운 사람은 없고 5) 남은 두-6인지는 두가지 남 자신의 정면 대상 안하더라 것이다 남 이런 말을 배운 사람은 없고 6) 남은 두-6인지는 두가지 남 자신의 정면 대상 안하더라 것이다 남 이런 말을 배운 사람은 없고 7) 남은 두-6인지는 두가지 남 자신의 정면 대상 안하더라 것이다 남 이런 말을 배운 사람은 없고
나레이션 구상을 위한 구성 정리와 간단한 나레이션 구조 정리	문래동 편집 구성안 & 나레이션 구조 정리 말해있는 청공소, 청공소 사장님들이 일이 있어 앉아 있음. 1. 타이틀 2. N문래동에 대한 설명 : 문래동, 청계천에서 밀려난 많은 청공소들이 자리잡아왔으며 60년간 이어져왔 다. - 문래동 전경 인서트 청공소 3. N. 김민 빌드위에 예술인들이 한나들의 자리를 잡으며 문래동은 청공소와 예술의 만 남이라는 특별한 조합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 청공소 그래픽, 로보, 등 예술과 청공소의 조화가 잘 드러나는 장면 인서트. 4. N. 예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낮에 항상 사람들이 붐볐지만 지금은 낮보다 밤에 사람들이 붐빈다. - 자로화면 -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리 - 밤에 사람들이 붐비는 문래동 2가 5. N. 여는새 청공소들은 하나둘씩 음식점이나 술집으로 바뀌었다. - 청공소 별로 열 가게 모습 I 4가는 아직 문래동 2가는 지금 많이 나갔어. 규모가 작아지면 젊은 사람들이 양 정 몰려와. 6. 상권이 돌아서며 돌아지는 임대료에 청공소 사람들은 타격을 입기도 했다. I 임대이다. 옛날에 비해 많이 죽었다. 출세도 8월달까지도 좀 많이 했는데 그 뒤로부터는 하락세를 보인다. (김동철) II 경기도 안동시와 중국의 제주시의 경쟁력에서도 불안하다. 중국 제품이 옛날 같이 많고 많이 들어왔다. (신동상화) III 또, 대기업에서 옛날에는 외주일을 했는데 원장이 한창한 데 주고 하량이 또 밀어주고 이랬는데 이제 하량까지도 안온다. 옛날에는 대우나 기아에서 하 량을 주고 반도체에서 하량을 주고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들어와서 (신동상 화) IV. 경기도 또한 그만큼 많이 살아있지도 않다. 그래서 일들도 잘 안온다. 결국엔 일도 없고 임대료도 오르니 떠나게 되는 것이다. (신동상화) 8. 떠나는 청공소들 I 9. 떠나야하는 건 청공소뿐만이 아니다. I. 임대이고 할 수 없다. 아무래도 공장사람들도 새로 생긴 카페에 호기심을 보 이고 가서 먹어보고, 2000원짜리도 있다고 하면 가서 먹어본다. 원래는 다방 에서 그렇게 먹고 하세를 갖는데 새로 생긴 곳으로 가다보니 지금은 생긴 있 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 것 같다. 앞서 말한 이유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계속 오다보니 공장이 하나 둘씩 없어진다. 공장 하나하나가 내 거라하고 속 히 법률인데 그것들이 다 나가는 것이기에 장사가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 재 고민이 많은 것이다. (별다방) II 10. 다들 이를 사함이 없다. I. 안고고 살기 보다는 나이가 있어서 다른 곳으로 가면 못한다는 것이다. 나 5-6년이면 퇴직이기도 하다. 이아반을 사함도 99%는 없을 것이다. 언젠가는

- 이야기를 따라갈 중심과 처음-중간-끝이 보이지 않는다.

정보만을 많이 담아 숨쉴 틈이 없는 느낌이라는 피드백을 반영해 이야기의 기승전결을 새로 구성했다.



- 에피데믹 사운드 구독 후 다큐멘터리 관련 음원 리스트를 정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음원을 사용해 시청자의 감정을 끌어올리고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

ES_As Long As We Go - Cecilia Lindh.mp3	2024년 12월 8일 오후 10:08	7.4MB	MP3 오디오
ES_Heal - Jakob Ahlbom.mp3	어제 오전 3:48	6.9MB	MP3 오디오
ES_Just Breathe - Amber Glow.mp3	어제 오전 3:47	8.1MB	MP3 오디오
ES_Mountain Top - Marc Torch.mp3	2024년 12월 8일 오후 10:12	4.4MB	MP3 오디오

- 편집 담당(000)과 함께 편집을 진행했다. 레퍼런스 다큐멘터리 '나의 집은 어디인가', '지방소멸 현주소 | 다큐 시선'의 구성을 참고하여 나레이션의 배치와 인서트 소스의 배치 등을 구성했다.

편집 및 부가요소
추가





3. 자기 평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다큐멘터리라는 포맷의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해보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막연하게 해보고 싶었던 장르의 벽을 느꼈지만, 공부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최근 느끼지 못한 열정을 느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고, 내레이션을 맡으며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첫 '도전학기'인 만큼 추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함께 한 학기를 완성해준 팀원들에게도 미안하고 고맙다.
자기 평가	촬영구성안을 토대로 문래동 현장 촬영을 진행했다. 현장 촬영은 항상 변수가 쫓아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심할 경우 촬영구성안대로 촬영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장면들을 카메라에 담고자 노력하였다. 철공소, 가게, 카페 등 건물뿐만 아니라 주제에 맞는 길목, 철 자재들 등을 카메라에 담았다. 확실히 현장 촬영은 언제나 지친다. 그래도 선배들의 조언에 힘입어 최선을 다해 촬영에 임했다. 촬영 후에 돌아와서는 영상 소스 분류와 인터뷰 정리를 진행했다. 분류와 정리가 힘들지만 영상 편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작업이다. 적은 양이 아니어서 분류하고 정리하는데에 조금 힘들었지만 영상을 위해 인터뷰 내용부터 정리를 끝냈다. 다 끝내고 나니 확실히 뿌듯했다. 그 다음 작업은 이야기 열개를 만드는 작업이었다. 나는 항상 영상을 표현하는 방법(예를 들면 A나레이션 소리에 B의 장면을 입혀서 편집하면 되겠다.)으로만 생각을 하다보니

	영상을 어떤식으로 풀어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관점 도출이나 이야기 흐름을 짜는데에는 쉽지 않았다. 확실히 이야기를 만드는 작업이 정말 힘들었다. 그래도 <다큐의 기술>의 이야기 열개 파트를 보며 쉽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스토리를 짜서 연출(000)에게 피드백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편집구성안을 작성을 하였다. 관점과 스토리 구성을 통해 편집을 해야하기에 영상의 소스를 보면서 이러한 파트에 이러한 영상이 들어가면 되겠다 생각하며 편집구성안을 작성하였다. 같은 영상 소스여도 순서나 속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영상별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기에 고민을 많이했다. 나레이션을 먼저 쓰고 그 위에 영상 소스들을 입히는 형식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여 그 방향으로 편집구성안을 작성하였다. 편집이 쉽게 진행되려면 꼭 필요한 작업이기에 고민하며 작성하였다. 위의 내용들 중 쉬웠던 작업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도 옆에서 아끼지 않는 선배님들의 조언 덕분에 하나둘씩 나름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활동들이 나에게 거름이 되어 더욱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10.31-11.01 이틀간의 촬영을 진행하면서,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의 현장성이 높다는 것을 실감했다. 촬영구성안을 따라 촬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인터뷰어를 섭외하거나, 인터뷰 내용을 끌어내기도 어려웠다. 생각보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촬영을 진행한다는 것이 어려움을 새삼 느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원들과 함께 많이 말도 걸어보고 인터뷰 전에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터뷰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레퍼런스에서 본 대로 영상 구도를 잡고, 필수 소스를 촬영하면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배경의 아름다움을 느꼈다. 첫날의 촬영이 끝나고 1차 이야기 열개를 짜기 위한 흐름을 정리했다. 우리가 조사한 것과 다른 내용도 있었고, 더 많은 정보를 현지인들에게서 얻었기 때문이다. 2일차에는 문래동과 관련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촬영 이후 가지고 있는 인터뷰 내용과 소스,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나열할 수 있는지 많은 고민을 했다.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많다 보니 모든 정보를 다 넣고싶은 욕심에 숨 쉴 틈이 없는 정보성 다큐영상이 되어버렸고, 교수님의 피드백 이후 흐름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은 빼고 기승전결에 맞는, 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었다. 이 다큐멘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와글'에 상영하고, 학우들의 많은 감성평을 보면서 고민한 시간에 대한 뿌듯함을 느꼈다.

4. 최종 결과물

4-1 팀 공동 결과물

1) 다큐멘터리 최종본 [작고 강한 장인들은 어디로 가나 : 문래동 이야기]

- <https://youtu.be/rGeZ8lG-CEY>

2) 메이킹 필름

- <https://youtu.be/th-bkEXwwwQ>